진딧물에 속지 말고 자기의 콩씨에게만 집중하라

☞ 17면에서 계속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허공이 다 에너지 허공이라고 해도 되죠. 허공뿐만 아니라 모두가 50%는 에너지고 50%는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색신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얼른 쉽게 말해서 사람을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짓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짓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엉뚱나가게 잘못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다가 놓고 관해라. 알지 못하는 거 거기다 놓고 관해서 거기서 그냥 떨어지게 해라." 허허허. 아니 정말, 정말 그거는 한 번에 거기다 놓고 해서 장풍이 맞으면 그냥 한 아름에 하나로 그냥 떨어지니깐요. 떨어지는 사이가 없으니깐 모르시겠지만 말이에요.

이거는 우주 간 모든 법계에 어느 누구도 다 동시에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 아닌 여러분, 항상 나라고 하지 마시고 나 아닌 나 그게 바로 자기 불성이자 주인공이에요. "불성이자 주인공이죠." 하는 말이 별성이자 주인공이에요. 이게 하치 않은 말 같지만 여기에서 잘 묘미 있게 하신다면 정말 도구를 쥘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고통 잘 극복하려면

질문 : 요즘은 시국이 이러니 우리들 마음 또한 매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설하셨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여러분들한테 줄창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나간다면 팔자 운명이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들 살겠지만, 이 마음공부를 하고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자기고, 마음을 허탕하게 쓰는 것도 자기입니다. 이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옳고 그른 거, 하지 않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거를 다 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를 쓰는 대로 고다, 고가 아니다 하는 것이지 고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런데 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승화시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데를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 그 처참하고 갈 길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렇게 해 보질 못했으면 그런 게 앞으로 또 닥치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깐 모든 것이 자기 경험이고 또 경험에 의해서 끄달리지 않게 되고, 끄달리지 않음으로써 편안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그 눈도 깜짝거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 마음이 모두 하는 짓입니다. 마음이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고 마음이 고통을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서 하늘이 무너진다, 뭐 그, 일본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지진이 나서 그 야단들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수만 명이 죽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고통은 하나도 없단 얘깁니다. 그 즉시에 죽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고통이 고통이라고 하니깐 고통이지 고통은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없고 있고를 모두 둘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 악도 둘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가 고통으로 생각 안 하시는 반면에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으로 생각을 안 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음파를 통해서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얼마 되질 않아서 그렇지 마음공부 진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그 허공에도, 즉 말하자면 모든 두루두루 음파를 통해서 살게 되는 거죠. 진화를 하게 되고 모두 그렇게 되는 거죠.

>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입력이 되고 그게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중요한지 깊이 아마 이다음에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진화력을 가지게 되고 또 진화를 하되 어떠한 불신한 걸로 하지 않고, 모습이 아주 보기 싫은 걸로 하지도 않고, 잘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고, 마음을 잘 해 가지고 나오고, 또 둘 아니게 착하게 길을 잃지 않고 여여하게 살게끔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인공에다 기쁘게 놓으세요.

갱년기라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질문 : 요즘은 제가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다 보니 괜히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육신에 대한 집착이 커서 그런 것일까요?

답변 :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태어나기 이전의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고, 지금 현실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는 바로 자기가 형성시켜서 놓은 자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무시하겠습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거는 자기한테 그대로 보배로서 있는 건데….

그거를 진짜 알아서, 둘 아닌 도리를 알고 '낫게 하든지 낫지 않게 하든지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지 않아. 지켜 주는 것도 너고, 이끌어 주는 것도 너고, 해결사도 너고,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야.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함이 없이 할 수 있고, 너만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게 할 수 있고….' 지금 보이는 나와 안 보이는 너가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가 보이면 자기도 보이고 내가 안 보이면 자기도 안 보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렇게 밀접하게 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때 들어 보면 아주 얼토당토않은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어느 분이 어디가 어떻다고 어떻다고 이렇게 그냥 치명적인 말을 병원에서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느냐?" 하고 어떤 땐 물으면요, "3년이나 4년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어찌 그래?" 그러면은 씽긋이 웃고선 "오기는 그렇게 왔으나 몇 번 오지는 않았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깐 넘기가 어렵더라도 좀 실천을 해 보고 죽고 사는 거 그까짓거…. 아니, 그렇다고 해서 굶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집착을 하고 살지 말라 이거죠. 오직 몽둥이 하나 들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 이거죠. 오직 몽둥이 하나 들고. 이게 바로 주장자며 불성입니다. 자불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는 것이지,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저 큰 나무 이름이나 형상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는 그거는 공덕이 하나도 될 수 없느니라." 했거든요.

이 마음공부 하는 도리는요, 한번 인연을 만나는 게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마음공부 하는 게. 이 옷 벗고 옷 속에 그 곤충의 세계를 다 벗어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보기 흉하고 그런 곤충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해야 합니까?

부처는 못 된다 하더라도…, 비천상 보셨죠? 은비까비? 금비까빈가 은비까빈가, 그런 것처럼 그저 이것도 이 모습으로도 됐다가 저 모습으로도 됐다가, 이거를 건지려면 이 모습으로도 되고 저거를 건지려면 저 모습으로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선 다 건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과거, 지나간 과거고 또 앞으로 올 미래고 현재에 살아가는 이 현실이고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과거, 미래, 현재 이러지 이 지구가 돌아가는 자체에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항상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름도 없죠. 그런데 사람은 가르치기 위해서 과거니 미래니 현실이니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질서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또 이러니저러니 말을 해 놓고….

하여튼 모든 거를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보세요. 공에다가 그냥 모두 집어넣으면, 공을 집어넣으면 뭐가 남습니까, 거기. 공에다 공을 집어넣는데 그 얼마나 빨라요, 글쎄. 사람들이 그냥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너 있으면 나 있고 나 있으면 너 있고 모두가 둘이 아닌데 말입니다. 세울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든 게 그런데, 모두가 둘이 아닌데…. 이 컵과 컵이 둘이 아니라면 한 컵이, 자기 컵 하나가 자기 컵을 깨트리겠습니까? 마주쳐야 깨트려지지. 그걸 명심하세요.

고2 학생인데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질문 : 저는 학생회 학생인데요, 학교에 가기 싫을 정도로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제 자신이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으니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방황하게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저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우리 학생도 많이 봐 왔겠지만 우리가 지내다 보면 참 가난하고 이를 데 없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니는가 하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못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안 해서 부모들이 속을 썩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싫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속의 업식이 다 '싫어해라, 싫어해. 그건 해서 뭘 하니?' 하고 자꾸 하니까 거기 따라서 그냥 더불어 같이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업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 악업 선업이 다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자기한테 콩씨도 붙어 있고, 자기한테 진딧물도 붙어 있고, 자기한테 벌레도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딧물에 속지 말고 자기의 콩씨에게만 집중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니까 자기 마음에서 진짜 나오는 건 줄 알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게 나쁜지 좋은 건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저지르는 것뿐이에요. 물론 생각해 본다고 하겠죠.

그런데 잘못되게 하는 마음이 많아서 잘못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입력이 되고, 그게 현실로 나오는 것이죠.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입력이 되는 대로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한 입력을 못 했을 때 입력이 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우면서 새로 입력할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바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알아서, 예를 들어서 공부가 하기 싫으면 '너만이 공부하는 것을 재미있게 할 수 있어!' 이러고 입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싫게 했던 입력이 없어짐으로써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겠어요? 배우는 사람이니까 알겠지요.

그래서 과거에 입력됐던 그 모두를, 누적된 모두를 지금 현실에 한생각을 좋게 바란스를 맞춰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 잘 생각해서, 나를 리드해서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너다 이거야. 물리가 터져야 잘못된 부분을 고칠 테니까. 지혜롭게 살게 하는 것도 너고,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것도 너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것도 너니까 잘 보게 하는 것도 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렇게 관(觀)해 보세요.

잠이 와서 공부가 안 된다 할 때도 잠을 안 오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도 너고, 하기 싫다 의욕이 없을 때 의욕이 있게 하는 것도 너라고 관해서 거기다 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면서 새 입력으로서 현실에 나온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만 한다면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학생의 모습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항상 이끌어 주는 내 안의 주인공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나의 친구이자 나의 길잡이인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 보세요.



